

박봉우 시의 공간 구조와 타자의식 고찰

신 진 숙

(추계예술대학교)

국문초록

본고는 박봉우 시인의 시를 공간과 타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의 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의 시가 지닌 공간구조와 인식은 타자의식과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그의 시는 전후의 시대적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시에 대한 기존 논의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우세하였다.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전후에 대한 시적 형상화로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시를 일면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의 시가 지닌 일정한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박봉우 시인의 전후인식과 그 내면화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의 시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첫번째 시기 동안, 박봉우의 시에는 분단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표현하는 공간은 『휴전선』으로 대표되는 공간이다. 그는 휴전선을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때 그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나비이다. 나비는 공간적 경계를 넘는 존재로 표상된다. 박봉우 시인은 전쟁의 비극성을 극복하고자 비극적 공간을 새로운 재생을 향한 신화적 공간으로 대체한다. 이때 시적 주체는 타자에 대하여 낭만적인 동일시의 감정을 지닌다. 두 번째 시기는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로 대표되는 1960년대 시기의 시들로 구성된다. 시적 공간인식은 전후의 폐허로 남겨진 도시공간으로 이동한다. 이제 신화적 공간은 해체되어 간다. 그가 인식한 시적 타자는 민중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황지의 풀잎』을 대표로 하는 7·80년대 시기로서, 자아와 세계를 이어주는 끈이 사라진다. 분열의식이 존재한다. 공간과 타자에 대한 시적 긴장력이 약화된다. 미학적

긴장력 또한 약해진다.

박봉우의 시의 전개는 전체적으로 시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상상력의 긴장성이 소실되어가는 과정이며, 신화적 공간의 해체과정이다. 이러한 분석이 지나는 목적은 50년대의 전후 문학이 지닌 특성을 문학사적 궤적 속에서 이해하는 데 하나의 유의미한 이해 방법을 제시하고, 박봉우의 시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 이에 있다.

주제어

공간, 공간인식, 도시, 탈영토성, 심미적 상상력, 사회학적 상상력, 타자의 식, 신화

1. 서론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간에 존재하는 ‘단절-분열’은 문학적 상상력의 원동력이다. 시적 상상력은 이러한 단절을 분절화하고, 또 연쇄시킴으로써 텍스트의 안과 밖을 쇄신한다. 이 때문에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컨텍스트성을 시적 언어의 혁명으로 보았다.¹⁾ 사실 시의 내면은 자폐 또는 밀폐된 무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내면적인 심미적 상상력과 외부를 향한 사회학적인 상상력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즉, 하나의 시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내밀한 사회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학적 상상력을 심미적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시를 통한 감성적 사회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봉우²⁾의 시는 바로 이 점에서 하나의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그의 시는 전후의 폐허를 감성화하고 내면화하면서 동시에 사회학적 상상력 속으로 이

1) Kristeva, J., 김영 역, 『시적 언어의 혁명』(동문선, 1995)

2) 그의 주요 시집으로는 『休戰線』(정음사, 1957),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백자사, 1959), 『四月의 火曜日』(성문각, 1962), 『荒地의 풀잎』(창작과비평사, 1976), 『딸의 손을 잡고』(사사연, 1987) 등이 있으며, 시선집으로는 『서울 하야식』(전예원, 1986), 『나비와 철조망』(미래사, 1991) 등이 있다.

내면적 감성을 재맥락화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후의 상황에서 배태되는 실존의 위기는 분단이라는 사회정치적인 모순과 겹치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존재 내부에 각인된 하나의 이미지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시의식은 시 속에서 “나비”와 “철조망” 사이의 역학성으로 표출된다. 박봉우가 주조하는 “나비”의 이미지는 “철조망”으로 표상되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컨텍스트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역사와 사회가 박봉우 시가 지닌 중심회전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의 시가 지닌 서정성은 현실을 심미적으로 구성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박봉우의 시에 대한 평가는 1950년대 작품에 집중되고 있다. 그의 시는 주로 60년대 이후의 참여시로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전후의 문학 상황에서 유의미한 참여 문학적 실천가능성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는 역사적 맥락, 즉 분단과 사회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문학적 성과라는 시각에서 주로 논의된다. 따라서 비교적 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전후의 50년대 시에 더 많이 주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박봉우의 시에 대한 민족주의적 지향성과 이를 통한 문학사적 평가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의 시가 지닌 내밀한 감성의 영역을 낭만적인 감상으로 가치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은 그의 시에 대한 총체적 측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그의 후기 시들과 연관된 정신분열증적 생애사에 대한 관심은 그의 전반적인 역사인식과 통합되지 못한 채 분리된 논의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 때문에 60년대 이후의 그의 시들은 비교적 주목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논의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그것은 6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신병동에서 보내야 했던 박봉우의 개인사를 두고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신 병력은 박봉우 시인의 시를 분석하는 데 하나의 억압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정신병력사적 측면에서 그의 시를 연구하는 논의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우 시에 나타난 정신병적 증상들에 대한 논의는 박봉우의 시가 보여준 가치와 문학적 진정성을

협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푸코에 의하면 광인과 정상인의 구분은 근대적 시선이 지닌 폭력적 기율-시선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중심의 신체와 틀을 유지하기 위해 억압적으로 타자를 분리시키고, 또 추방하고자 하는 근대의 폭력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정신병적 증후에만 집착하는 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봉우 시에 대한 두 편향된 논의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정신병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6·70년대의 시들도 이전 시들에서 보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러한 인식들을 심화하여 간직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문명사회에 대한 미시적인 비판이 더 진전을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박봉우 시인의 시를 시대적 흐름 속에서 - 그러나 그 흐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주체의식이 무엇인지 공간 구조⁴⁾와 타자의식⁵⁾의 측면에서 고찰하

- 3) 푸코는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광기를 가르는 모든 지식 체계를 권력과 연관시킨다. 순수한 지식과 권력의 높이는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을 동일자 주체로 인식하고 비정상을 타자화하는 담론을 통해 권력은 신체를 권력의 작용점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신체 자체를 기율화하고 감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주체에 대한 기율적 시선은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 그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미시적이고 내재화된 기율-시선이다.
- 4) 근대적 공간에 대한 이해는 합리성과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는 근대적 공간에 대한 개념이 곧 근대성의 의미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즉, 공간과 감각,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사유체계는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간에 대한 분석은 그러한 공간이 탄생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향한다. 그러나 시적 공간구조는 현실적인 공간구조를 반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환상의 이중적인 결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작가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재현과 창조는 텍스트의 의미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구조를 하나의 창조적인 시적 구조로 이해하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이 지닌 탈맥락적이고 동시에 맥락적인 영역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 5) 레비나스는 타자성에 대한 주체의 정립을 위한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타자 혹은 타자성은 주체가 단순히 여기 있다는 사실만을 지님으로써 주체에의 연루를 끊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의 정립을 초월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체의 존재론적인 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부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시선이 출발한다. 그는 또한 주체의 무화 혹은 타자의 대상화를 반대한다. 타자의식이란 바로 이러한 주체정립의 가능성으로

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시를 지탱하는 시공간구조는 시인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타자의식은 공간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알 수 있는 관계의 본질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의 시가 지닌 근대성과 역사성, 감성적 가치 등을 보여주는 좋은 시각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봉우 시인의 시는 통시적으로 볼 때, 일관성과 함께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분단현실과 이에 대한 시적 고찰이라는 일관된 시의식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시적 주제의식의 강도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박봉우 시인의 시가 지닌 총체적인 면모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시를 시기별 내지는 연대별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현실 인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봉우 시인의 시를 다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출발하고 그의 시적 구조의 본질적인 측면을 지닌 『휴전선』(1957)으로 대표되는 첫 시기와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1959)로부터 『4월의 화요일』(1962)에 이르는 두 번째 시기, 즉 분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시인의 삶이 교차하는 공간과 허무주의적 시인식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황지의 풀잎』(1976)에서 『서울하야식』(1986), 『딸의 손을 잡고』(1987)에 이르는 세 번째 시기에서 박봉우 시인이 나아간 분열증적 세계인식과 허무의식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유기적으로 고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박봉우의 시를 전체적으로 분단현실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분단현실을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서 이해하였는지, 그리고 창조의 영역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로서 고찰되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타자의식을 ‘타자에 대한 개념, 관점, 그리고 인식내용과 방법’으로 포괄하여 이해한다. 즉, 주체가 타자에 대하여 지니는 관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으로서, 주체와 타자의 이분법을 넘어 윤리적인 관점과 관계론적인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된다.(Levinas, E.,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문예출판사, 1996)와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민음사, 2003.) 참조)

2. 본론

1) 분단 현실과 공간의 신화화

항상 나무들이 차지한
 나무들의 對話를
 記錄해 둘
 그곳에서

어느때나 푸르게
 나무들은
 자랄 것이다

「여백」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박봉우 시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자연 서정에 닿아 있다.⁶⁾ 그의 시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싶도록 / 연연한 地帶에 歸依”함으로써 “어둠이 아닌 환한 窓門을 열고/ 풀들과 꽃들이/ 바람과 이야기하는/ 無言한 對決”(『都市의 무덤』(『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즉 인간과 자연의 내밀한 관계 회복을 향하는 것이다. 박봉우의 초기 시들은 이처럼 자연에 대한 순수한 감각을 투명하면서도 맑은 언어의 질감 속에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의 문학적 상황과도 연관된다. 당시의 시문학적 경향은 모더니즘적 시와 함께 전통주의적인 서정시의 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때 전통주의적 시에서의 자연 회귀적 사상은

6) 박봉우, 『新世代의 姿勢와 荒蕪地의 精神』(『韓國戰後問題詩集』, 1963, 신구문화사.) 박봉우 자신이 “하이텍커나 야스퍼스, 키에케콜 등의 實存思想이 오늘의 西歐文學에 미치는 영향과 儒敎精神, 佛敎精神이 東洋精神의 정맥을 이어 온 단계에서 오늘의 韓國現代詩의 발전성과 전망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박봉우는 황무지에 가까운 전후의 현실에서 전통 사상이 한국현대시의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전통주의적 사고에 긍정적이었다.

전후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견디는 중요한 대안으로 간주된다. 그 근처에는 서정주를 비롯한 전통주의 시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의 전통주의 시는 일제 강점기와는 달리, 똑같은 자연을 소재로 한다 할지라도 훼손되고 상처입은 자연의 이미지로 전회한다.⁷⁾ 자연은 이제 완전무결한 초월성이 아닌, 외상을 간직한 자연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박봉우의 시에 나타난 자연성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박봉우의 시에서 자연이 피 묻은 “나비”로 변용되는 이유일 것이다. 이제 자연은 이상적 공간이 아니라 “나비”라고 하는 고통과 희망의 역동적인 기호로 재구성된다.

그것은 그의 첫 시집 『휴전선』(1957)의 중심적 시의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비 이미지는 박봉우의 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나비는 일차적으로는 존재와 존재자의 모순을 의미한다. 날아가고 싶은 욕망과 결박의 이중성이 나비의 실존성인 것이다. 그러나 박봉우는 이러한 실존적 불안을 사회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나비라는 표상은 피투된 존재가 행하는 실존적 기투일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에 대한 기투이다. 실존과 역사는 나비라는 하나의 상징 속에 포개진다. 이는 박봉우의 시를 전쟁 직후의 비관적 허무주의와 구별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江과 또 山을 넘어야 진종일을 벌일없이 보낸
것이 된다. 西녘하늘은 薔薇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窓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타는 그러한 距離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속에서 피비린내나게 싸우는 나비 한마리의 상채기. 첫 고향의 꽃
밭에 마즈막까지 의지 할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香氣였다.

앞으로도 저 江을 건너 山을 넘으려면 몇<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
미 날개는 피에 젖을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適地.

7) 남기혁, 「전통주의의 전개」(한국현대시학회,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3.)p.318.

벽, 壁…… 처음으로 나비는 壁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我方의 따시하
고 슬픈 鐵條網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슬픈 표시의
壁. 旗여……

「나비와 鐵條網」전문(『휴전선』)

“꽃밭”은 나비가 “자살미수의 숨가쁜 季節”(『思春記』)을 떠나, 날아가고
싶은 이상적 공간이다. “鐵條網”은 나비가 날아오를 수 없는 차단벽을 의미
한다. 이때의 차단벽은 분단 상황과 더불어 존재의 실존적 상황이라는 이중성
을 지닌다. 나비-상징은 단절의 표시인 이 “철조망”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구현된다. 박봉우는 나비를 “旗”로 치환하고, 비행하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
는 생의 모순을 표출한다. 따라서 철조망이라는 분단과 단절이 없다면 나비라
는 시적 상징은 무의미하다. “꽃밭”과 “나비”의 “距離”가 나비의 존재 이유
인 것이다. 이 도달할 수 없는 距離야말로 “강렬한 바라움”과 날고 싶은 욕망
의 모태인 셈이다. 이러한 ‘역설’적 희망이 박봉우의 시가 지닌 삶에 대한 저
항성일 것이다. 또 내밀한 개인의 서정이, “형벌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웨
치고 찾고싶은 우리들의 領土”(『窓은』)라고 말하는 민족의 소망과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박봉우 시인이 지닌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그에
게 “휴전선”이라는 공간은 경계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차적으로 구체
적인 “休戰 地帶”(『新世代』)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역사적 시
공간을 의미한다. 즉, “휴전선”은 하나의 한정된 구역성을 넘어, 남과 북은
물론 삶과 죽음이 대립하고 역사의 충돌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형상
화된다. 이는 시인이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영토성과 이에 대한 탈영토적인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을 창조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비”라는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현실과 시적 상상력의 역설적인
조화에 대한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비라는 표상은 영토적인 분할과 경

계를 넘어 날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내포한다. 따라서 ‘철조망’은 단절과 통합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남과 북의 이분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적 인식으로 발전한다. 즉, 이분법은 단순한 분할이 아닌 탈영토적 겹침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박봉우 시인이 주조하는 나비의 이미지는 어떤 공간과 연관되는가. 즉, 그의 시에서 새롭게 창조된 공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적인 의미의 체계를 뛰어넘는 신화적인 의미체계로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휴전선은 민족의 비극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비극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확대된다.

헐어진 都市 또 헐어진 壁틈에 한줄기 하늘을 향하여 피어난 풀잎은
무엇을 意味 하는가.

봄, 봄, 봄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을을 말하는 것인가. 모질게 부비고 부비며 甦있는 자세여.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스쳐가며 나무들이 손짓하는 그리고 해와별들도…… 이 領土위에 조용히 오는 風景.

살벌한 틈사구니에서 모질게 부비고 부비고 피어나는 내가슴의 休戰地帶에서 너를, 너를 울리는 나. 나는 무엇인가.

바다. 너는 그섬에서 노래를 들이리라 무엇을 意味하는 풀잎의 소리를.
한 포기 꽃이 제대로 피어나는 統一을 領土를 世界를……

헐어진 都市에 아직은 窓. 窓은 있는가 병들고 시들은 봄이나 가을이란
그런 季節이 우리는 없어도 古木속에 이젠 피어야할 너를, 너를 울리고
창을 향해야 하지 않겠는가

『新世代』 전문(『휴전선』)

『나비와 철조망』에서 보여준 시적 역설은 전후의 폐허를 “荒蕪地”이면서

동시에 “新世代”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시인이 발견한, “헐어진 都市”의 “틈”을 벌리고 피어나는 “풀잎”은, “내 가슴에 休戰 地帶”에서도 “한 포기 꽃”으로 “제대로 피어날 統一”, 그것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내포한다. 시의 책무는 “廢墟에서 한톨의 꽃씨를 찾”(『中立地帶』, 『휴전선』)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때문에 “나비”, “旗”와 마찬가지로 풀잎은, 세계에 대한 실존적 저항이며 분단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지닌다. 이때 풀잎은 황무지에서 의 “新生”⁸⁾을 의미한다. 시인은 폐허 위에 기록된 “1950년대의 기막힌 이야기”(『窓은』)를 “解凍”(『思美人曲』)시킬 “풀잎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천둥같은 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休戰線』)라고 말할 때 드러나는 분단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에서 비롯하며, 이는 박봉우가 그려보이는 서정의 본질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신생” 혹은 “신세대”의 의미는 휴전선의 시공간과 비교할 때 미래의 시공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시 속에서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스쳐가며 나무들이 손짓하는 그리고 해와별들도…… 이 領土위에 조용히 오는 風景”이라는 자연의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내부에 본래 존재하고 있던 신화적 시공간의 회복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魂”의 회복을 의미한다. 혹은 신세대가 없었던 새로운 것의 도래가 아니라, 역사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부술 수 없는 무엇을 뜻한다. 박봉우 시에서 휴전선 혹은 휴전지대라는 공간은 단지 하나의 분단현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완전한 상태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휴전 지대”라는 시적 공간은 사회 현실적 공간을 뛰어넘어 이념적인 공간으로 재사유된다. 즉, 새로운 신화적 공간으로 질적 변환되는 것이다. 휴전선 위로 겹쳐지는 진정한 풍경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화적 시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세대”와 “나비”를 통해 보여주는 이러한 신화적 공간은 전후의 불안의식의 시적 승화이며, 허무주의에 대한 극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생의 “의미”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성하는

8) 박봉우, 앞의 글, p.369.

사회학적 상상력은 물론 심미적인 상상력의 작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즉, 박봉우 시인이 창조하는 시적 공간은 바로 ‘심미적인 이성’⁹⁾을 바탕으로 하나의 역사를 새롭게 성찰하도록 이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전후 시인으로서는 박봉우가 보여주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의 시의식을 민족주의와 더불어 미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박봉우 시인이 지닌 타자의식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타자의식은 이러한 신화적 공간의 의미와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즉, 시적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남과 북처럼 대치와 대립의 관계이지만, 시인은 이 둘의 통합과 결합을 지향한다. 어떤 의미에서 시인은 이러한 분할과 경계를 하나의 “意味”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위의 시에서 “古木 속에 이젠 피어야 할 너를, 너를 울리고 창을 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물음 속에 담긴 도래할 타자, 즉 “너”에 대한 사유를 의미하는데, 시적 주체는 바로 이러한 타자를 위해 영토적 분할을 넘어서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시인은 타자와의 관계를 일상적인 분리 이전의 단계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물론 이러한 “너”의 의미는 이념적으로 구성될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그의 시에서 이러한 타자의 의미는 “신세대”, “신생”이라는 새로운 신화적 공간을 전후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 속에서 구성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

2) 단절의 심화와 신화적 공간의 해체

그러나 이와 같은 서정과 역사의 상호 조응은 매우 불안정한 결합이다. 감성이 역사를, 역사가 감성의 결을 비춘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시인이

9) 김우창 외, 『행동과 사유』(생각의나무, 2004, pp.103-146.) 심미적 이성은 이 글 속에서 “로고스와 파토스 사이의 긴장을 사리면서 파토스를 육화시키는 로고스”이다, 이는 메를로-퐁티의 신체적 주관성과 일맥상통한다. 즉, 메를로-퐁티는 몸이 사유이며, 사유는 이 몸적 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성을 정립적인 것으로, 감각을 비정립적인 것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심미적 이성이란 이처럼 이원론적인 관점을 부정함으로써, 문학을 감성적 성찰, 구체적 이성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닿아 있다.

처한 사회, 역사는 시인의 실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전후 상황에서 실존주의가 하나의 이념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또 서정은 섬세한 감성의 의미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존적 불안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박봉우의 시에서 일종의 허무의식, 즉 “나는 어째서 나같이 비슷하게 생긴. 어머니 어머니를 아는놈을 죽여놓고 너털 웃음을 웃게 마련인가 차라리 저 풀잎들이 돌맹이들이 인간을 비웃는 소리가 아닌가”(『음악을 죽인 射擊手』 『휴전선』)라고 말할 때 느낄 수 있는 자조적인 분열의식과 구분되기 어려운 점 또한 존재한다. 이 점에서 서정과 역사의 만남은 박봉우가 지적한바 하나의 “슬픈 休戰”(『음악을 죽인 射擊手』)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박봉우의 두 번째 시집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1959) 이후의 시들에서 발견되는 허무주의적 공간인식 속에서 보다 잘 발견된다.

슬픈 立像을----

어느 정오의 落葉들에게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묻어버리고 싶다
都市의
모든 목소리는
사랑도 메마른 休日이거나
餘白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노래하고 싶은 것은
겨울의 廣場으로
街路樹들처럼
나의 앞에 머무는 時間.

蒼白한 손을 들어도
창백한 이름들은 불러도

生活은 落葉같이 모이는
쓸쓸한 하루.

모두 보내고난 뒤에
灰色의 마음은
말없는 별들과 더불어 걷고 싶다.

이글거리는 四溫의 體溫도
나눌 수 없는 寒帶에는
슬픈 새들만 울고가는 어두운 골목안.

「광장의 목소리」부분(『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위 시의 중심적인 공간은 “도시”이다. 그것은 “廣場”의 삶으로 요약되는데, 광장은 내밀함을 상실한, “이글거리는 四溫의 體溫도/나눌 수 없는 寒帶”로 표상된다. “슬픈 새들만 울고가는 어두운 골목”을 거느린 광장과 “아늑한 집”으로 표상되는 내밀한 공간은 대조적이다. 이는 남과 북이라는 분단현실에 대한 단절의식과도 유사하지만, 보다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발견되는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분단현실이라는 거대서사는 일상이라고 하는 미시 서사 속에서 재생산되고 반복된다. 따라서 단절은 외면적인 단절이 아닌 하나의 존재가 지닌 분열, 즉 내부와 외부 사이의 단절로 심화된다. 즉, 역사적 분단 이야기는 관계의 친밀성이 소실된 도시적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진다. 시인은 이러한 친밀성을 상실한 공간을 “슬픈 立像”들로 채워진 공간으로 이해하며, 이를 모든 것이 교차하는 “驛”으로 표상한다. “역”은 “광장”이 미지와 더불어 머물 수 없는 곳, “落葉 무덤”으로 인간적 온기를 상실한 공간 이미지이다.

죽은 뒤에
나에게 남은 단 하나의 空地는
풀을 가꾸고, 시름 없는
꽃들을 피우게 할

숨은 作業이 눈을 뜬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아무 것도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검은 屍體 위해서
빗발치는 灰色鋪道 위를
어릴적 나의 맑은 눈망울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나를 慰安할 마지막 空地는
웃고 있다.

사랑하고 싶도록
연연한 地帶에 歸依해
어둠이 아닌 환한 窓門을 열고
풀들과 꽃들이
바람과 이야기 하는
無言한 對決을
듣고 싶다.

이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죽음과 더불어
비를 맞고 서 있는 空間에서
검은 戰爭을
시작한다.

『都市의 무덤』전문(『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아가는 이따금 떨어진 호주머니에 십환짜리 잔전을 넣고,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털옷 입은 아가들이 구멍 가게에 가서 앵도사탕을 사지고 가면 종일 그것 부러워서 입술을 깨물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검은 寢室』부분(『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나는 언제부터 도살장보다 못한 이런 번지 없는 시장에 팔려 왔는지 주인
 없는 누구의 노예인지도 모르는 외딸입니다. 돈만 얼마로 흥정되면 나의
 붉은 값 헐하게 팔려가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귀중한 은행. <애크로마
 이신> 몇대를 맞아도 아무 기미가 없을 청춘이 상실된

『뒷골목의 受難史』부분(『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위의 세 편의 시에서 알 수 있듯, “휴전지대”라는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은 해체되고, 일상적인 도시공간이 부각된다. 상징과 후광을 잃어버린 도시공간이 있을 뿐이다. 그곳은 『都市의 무덤』에서처럼 “무덤”이나, 『검은 寢室』에서처럼 전쟁고아들이 살고 있는 비극적인 공간, 『뒷골목의 受難史』에서처럼 육체가 유린당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들 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허무주의와 고아의식이다. 시인은 전후의 도시공간을 정착과 정주의 공간이 아닌 역사적 비극성을 동반한 이향과 이주의 공간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이향과 이주로서의 공간은 그가 꿈꾸는 친밀감의 영역, 즉 “사랑하고 싶도록/ 연연한 地帶”와 대립되면서, 박봉우 시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낭만적 불일치를 더 강화시킨다. 이는 전체적으로 그의 시가 지닌 원형적인 영역, 즉 통합이 이루어진 신화적 공간의 와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때, 주목할 점이 바로 타자에 대한 시적 인식이다. 즉, 시적 주체는 타자에 대하여 낭만적 거리를 상징하고, 위의 시들에서 알 수 있듯 시인은 타자를 “매춘부”, “고아” 등 고통 받는 역사를 겪어낸 민중의 모습으로 이해한다. 이는 그의 현실인식이 분단이라는 틀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간으로 이동한 것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전의 “너”로 표상되는 추상적인 타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처럼 민중으로 표상되는 타자는, 단절을 넘어 도래할 미래적 존재라기보다 현실 속에서 직접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 그 자체로 이해된다. 이는 박봉우의 시가 휴전선으로부터 촉발되는 신화적인 공간이 아닌 도시라는 구체적인 현실공간으로 나아간 사실은 물론 1960년 4·19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도 연관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타자는 시적 주체에게 보다 구체적인 윤리적 출발점이

며, 주체를 정립하는 존재론적 조건으로 변모함을 알 수 있다. 즉, “휴전시대”라는 이념적 공간이 아닌 현실적인 타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상공간의로의 변화가 민중이라는 타자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다. 레비나스가 말한바 그것은, 타자를 어루만짐으로써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이타적인 접촉을 가능하게 되며, 주체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의 형이상학적 초월을 가능하게 해주는¹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구체적인 일상 공간의 부여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박봉우가 체현하는 타자의식은 객관적인 현실인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통 받는 타자에 대한 낭만적이며 감상적 접근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화된 타자의식은 본질적으로 세계가 파괴해 버린 관계의 ‘친밀성’¹¹⁾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적 기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봉우는 이러한 타자의식을 통해, 전후는 물론 그 이후의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사물화된 관계를 극복하고,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타자에게서 발견하고 이를 낭만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그가 지닌 문명의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으로, 그의 공간인식에서도 드러나듯, 박봉우 시인에게 문명은 친밀성의 영역을 불모의 것으로 만들며, “詩를 경원하고 노예화시”¹²⁾키는 물신성의 시공간이다. 박봉우 시인에게 시는 바로 이러한 물신성과 비극성을 극복하고, 전후의 “황무지를 노래”¹³⁾하는 역설적 힘에 대한 추구였던 것이다.

10) E. Levinas(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문예출판사, 1996)

11) A. Giddens(배은경, 황정미 공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새물결, 1996.) 기든스는 현대성의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서의 이러한 관계의 친밀성 구조변화에 대하여 주목한다. 친밀성은 공적 기술보다는 관계의 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주체와 타자 간의 밀접성을 의미한다. 현대화는 감정적 삶이 재질서화와 병행하며, 현대의 친밀성 구조는 부권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질서는 개인화된 감정의 층위로 변화해 왔다. 현대성으로서의 친밀성이란 따라서 타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친밀성은 상호배타적인 조형성(造形性)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계 외적인 다른 것에 의해 조정되는 소외된 관계를 의미한다. 기든스가 의미하는 미래지향적 친밀성이란 조형성을 벗어나 관계 그 자체의 내인 요인에 따라 형성되고 지속되는 평등한 의사소통적 관계, 즉 순수한 관계를 뜻한다.

12) 박봉우, 앞의 글, p.368.

13) 박봉우, 같은 곳,

3) 공간 통합의 실패와 분열의식

박봉우는 이러한 맥락에서 낭만적인 성격이 강한 “詩人共和國”(『四月의 火曜日』(1962))을 꿈꾸었다. 이는 그의 네 번째 시집, 『荒地의 풀잎』(1976)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¹⁴⁾ 현실과 이상, 세계와 자아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깊은 실패감이 만들어지고, 이는 결국 허무주의의 심화와 시적 분열의식을 초래하고 만다. 결국 대립과 긴장을 통해 시적 의미를 발견하는 창조적 공간에 대한 구성 자체가 소실되고, 그 자리에 보다 깊은 비극과 좌절의 허무인식이 자리하게 된다.

나는 南
너는 北
양단된 가슴팍에
서로의 비극은 뼈아프다.

나비들은 나비들은
철조망을 오고 가고 하는데
답답한 벽은
언제 무너질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무너질 것인가

한 핏줄
한 겨레가
온통 합장하는 날
南北이 서로 마음 터놓고 만나는 날……

녹슨 철로 위에

14) 박봉우의 세 번째 시집 『사월의 화요일』(1962)은 “정신병동에서 보내온 편지”라는 소재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채 진술되고 있으며, 특히 4·19혁명의 열정과 좌절을 드러내는 시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짙어진다.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의 감정이 타자의식으로 확대되지 못한다.

진달래는 흰히 피어 웃으리라

그때 내 祖國의 무덤 곁에
역사는 아지랑이같이 다시 피어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산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荒地에 꽃핀』전문(『황지의 풀잎』)

이 시에서도 박봉우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인 “나비”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그러나 『휴전선』에서 보여주었던 미학적 긴장은 사라지고 없다. 그것은 현실적 공간에 대한 시적 공간의 창조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조에 있어서도 탄식과 자조로 일관된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그의 역사인식이 낭만적인 타자의식과 결부되어 있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더 중요한 원인에서 비롯하는데, 다음 시에서도 알 수 있듯, 그것은 선과 악, 진위, 통합과 단절, 삶과 죽음,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분법적 시각의 심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나비와 철조망』에서 보여준 이분법과 이에 대한 탈영토적 시적 상상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달래꽃이 흰하게 필 무렵
수백리 길
어린 소는 팔려가야 한다.

소의 눈동자는
現代韓國
눈물이 글썽거린다.

빛 때문에 팔아야지
大學등록금 때문에 팔아야지

붉은 입술들이
진달래꽃보다 붉게 핀

서울이라는 明洞
 어느 한 구석의 땅 한 평
 몇 천만 원의 금덩어리라는데,
 저놈의 논과 밭은
 빛만 늘어가는 땅.

이젠 농사고 지랄이고 그만두고
 서울에 가서 지계벌이라도 하면서
 흰쌀이나 한 봉지씩 사들고
 愛國이나 해야지.

진달래꽃이 흰하게 필 무렵
 소는 누구를 위해
 수백리 길로 팔려가는 현실과.

우리들의 얼굴이 붉은 봄은
 언제, 언제
 언제 풀리나

『팔려가는 봄』 전문(『황지의 풀잎』)

위 시에서도 마찬가지다. 흰쌀밥 한 그릇의 꿈을 가진,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몸 하나로 생을 지탱해야 하는 가난한 이농민의 삶은 “명동”과 대조를 이룬다. 박봉우 시인에게 타자는 여전히 고통 받는 타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굴을 바꾸었을 뿐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월남전쟁에 특과 나가서/ 한 통의 기사도 못 쓴 특과원”인 애리아빠(『社會部長』 『荒地の 풀잎』)와 같이 주변적 존재들, “서울은 언제부터 이렇게 넓어졌나”라고 되뇌며 “낮은 하 이힐 신은/ 꼬슬머리 처녀가/ 건빵을 씹으면서 청와대 뜨락을 보며/ 허기진 유행가를 부르”(『仁旺山 건빵』 『荒地の 풀잎』)는 사람들, 경제 개발의 뒤편 길에서 쓸쓸하게 삶을 영위해 가는 도시빈민, 혹은 이농민 등. 그러나 거기에는 이전 시에서 보이는 세계와 자아, 공간과 공간 사이의 낭만적 긴장은 보이지 않는다. 시인의 심미적 상상력이 타자의식을 통해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확장됨으로써, 시대의 고통을 투시하였던 시적 노력들이 약화된다. 이는 그가 지닌 정신 병력과도 연관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가 구상한 낭만적인 공간 인식의 감상적 측면과도 연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와 현실 사이의 긴장 해소는 궁극적으로 분열의식의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그의 시는 현실에 대한 시적 구조화에 실패하고 만다.

정말 무자비해 버릴까
조용히 살고 싶다.

비웃어 버릴 수도
받아 줄 수도 없는

이 억울함을
누군들 알으리.

정말 무자비해 버릴까
내 인정은
조용히 살고 싶다.

정말 무자비해 버릴까.
『조용히 살고 싶다』전문(『딸의 손을 잡고』)

즉, 위의 시에서처럼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은 좌절과 실패의 감정들이 결합된 감정 상태로 부각되며, 이는 공간에 대한 미학적 태도 역시 약화시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의 마지막 시집인 『딸의 손을 잡고』(1987)는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시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의미와 “정말 무자비해 버릴까”라는 의미 사이의 간극을 통합하지 못한다. 이는 박봉우 시인이 보여준 전후의 분단현실에 대한 미학적 인식이 도달한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그의 작품들을 전후 문학의 가능성과 의미에 대한 논의 속에서 전개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박봉우 시인의 공간인식과 그의 시에 나타난 공간구조는 전후의 시대적 인식과 연관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분단현실과 이에 대한 시적 대응의 시기, 분단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에서 발견되는 미시적 단절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의 두 시기에서 보여지는 단절과 통합의 시적 긴장력의 해소와 맞물리는 세 번째 시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들 세 시기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의 경우 『휴전선』으로 대표되는 시기로서, 전쟁 직후의 195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휴전선”을 “휴전지대”라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이를 “나비”와 같은 상징적 이미지 속에서 탈영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박봉우 시인은 남과 북이라는 대립적 공간을 영토적 분할로 이해할 뿐 본질적인 분리로는 이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공간인식은 시적 상상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분리를 통합할 수 있는 신화적 공간의 재현으로 이어졌다. 타자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데, 이 시기의 타자의식은 낭만적인 일치에 대한 기원이 강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로 대표되는 1960년대를 중심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그의 시에 나타난 공간인식은 전후의 폐허에 대한 인식과 겹치는 것으로, 단절의 심화시기로 볼 수 있다. 전 시기와의 차이점은 분단의 기정사실화와 더불어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발견되는 비극적 삶의 모습에 대한 주목이다. 도시적 삶은 『휴전선』에서 보여준 세계와 자아 사이의 미학적 긴장력을 미시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신화적 공간의 가능성을 해체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자에 대한 이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닌 당대를 살아가는 고통 받는 타자들, 즉 민중의 의미로 보다 구체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 시기는 『황지의 풀잎』을 대표로 하는 7·80년대 시기로서, 이전 작품에서 주제들의 연속성을 보이는 가운데 단절과 통합의 변증적 인식은 소멸되고, 분열의식의 심화를 드러내는 시기로서 공간과 타자에 대한 시적 긴장력

역시 매우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박봉우의 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성을 지니는 가운데에서도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의 시는 전체적으로 시적 상상력과 사회학적 상상력의 긴장성이라는 측면으로부터 심미적 상상력의 약화라고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분단현실에 대하여 신화적 공간의 구성이라는 시적 대응으로부터 그러한 신화적 공간의 해체과정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라고 이해되며, 동시에 그것은 박봉우 시인이 지닌 분단의식이 보다 구체적인 현실인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그가 지닌 타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보다 명확해지는데, 그의 문학이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이 지니는 목적은 50년대의 전후 문학이 지닌 특성을 문학사적 궤적 속에서 이해하는 데 하나의 유의미한 이해 방법을 제시하고, 박봉우의 시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작업이 당대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문학적 고찰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보완할 계획이다.

❖ 참 고 문 헌

<1차자료>

- 『휴전선』, 정음사, 1957.
-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백자사, 1959.
-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 『4월의 화요일』, 성문각, 1962.
- 『황지의 풀잎』, 창작과비평사, 1976.

- 『서울하야식』, 전예원, 1986.
 『딸의 손을 잡고』, 사사연, 1987.
 『나비와 철조망』, 미래사, 1991.

<논문 및 저서>

- 강희안, 『박봉우의 전후시와 자아 확립』, 문덕수 외 공저, 『한국현대시인 특성론』, 국학자료원, 2000.
 김우창 외, 『행동과 사유』, 생각의나무, 2004.
 김윤식, 『근대시와 인식』, 시와시학사, 1993.
 김재홍, 『한국 전쟁과 현대시의 응전력』, 평민사, 1976.
 남기혁, 『박봉우 초기시 연구』, 『작가연구』, 새미, 1997.
 노용무, 『박봉우 시 연구-‘나비’의 비상과 좌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제22집, 한국문학회, 1998.
 박윤우, 『전후 한국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정신사적 연구』, 『문학한글』제7호, 한글학회, 1993.
 신기훈, 『박봉우의 50년대 시와 ‘나쁜 주체’의 역할』, 『어문논총』제4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심선옥, 『1950년대 분단의 시학-박봉우론』, 조건상 편저, 『한국전후문학연구』, 성대출판부, 1993.
 오성호, 『상처받은 ‘나비’의 꿈과 절망』, 『1950년대 남북한 시인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오윤정, 『한국현대리얼리즘 시의 두 양상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02.
 유성호, 『1950년대 후반 시에서의 ‘참여’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10호, 민족문학연구소, 1997.
 윤여탁, 『한국전쟁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문학과논리』3호, 태학사, 1993.
 이종호, 『황무지와 지성인의 역할』, 정창범 편, 『전후시대 우리 문학의 새로운 인식』, 박이정, 1997.
 최동호 편, 『새로운 비평논리를 찾아서』, 나남, 1990.
 한수영, 『1950년대의 재인식』, 『문학과 현실의 변증법』, 새미, 1997.
 한형구, 『1950년대의 한국시』, 문학사와비평연구회 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2.
 Adorno, T. W.,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 Benjamin, W.,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학이론』, 민음사, 1983.
- Berman, M., 윤호병, 이만식 공역, 『현대성의 경험』, 현대미학사, 1998.
- Collot.M., 정선아 역, 『현대시의 지평구조』, 문학과지성사, 2003.
- Descombes, V.,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 Kristeva, J., 김영 역,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1995.
- Langer, M. M., 서우석, 임양혁 공역, 『메트로-뿔띠의 지각현상학』, 청하, 1992.
- Levinas, E.,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 _____,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 Ranciere, J.,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미학과 정치』, 출판사b, 2008.
- Zaner, R. M., 최경호 역, 『신체의 현상학』, 인간사랑, 1993.
- Giddens, A., 배은경, 황정미 공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Spac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Other in Park Bong-u's Poems

Shin, Jin-sook

There is an interaction between the construction of the space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other in Park Bong-u's poems. It has been thought that Park Bong-u's consciousness of the the-post-war(6·25) was as a start point of his poems. Therefore, the discussion on his poems is related to the nationalism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Because of that reason, this discussion is also limited and oversimplified on his works. For now, more various study on Park's Works is necessary.

In the first period, Park Bong-u was interested in the Korean war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important thing was that the images of the space he got was abstracted from the image of the border area, the 38 line. He presented his emotion from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a 'butterfly'. The image of the butterfly symbolized the deterritorialization of the thought. He thought the image of the butterfly as what is transcend the limits of the real space which is the inter-Korean relations. He replaced the tragedy of the war with a mythological space. Then, he constructed the poemric subject that he regarded as the same way of the Other. Later, many things were changed. The image of the mythological space was gone. A new image came. Image of a city that had a pitiable scene. Then he interested in a sad life of the people. But his poems seemed to lose a aesthetic tension force. His poems had a instability. Sometimes, in fact, he had a dissociation of consciousness. I think that this process of his poems is symbolized of the literature of the post-war.

Key Words

없음

논문접수일: 2009. 4. 27.

심사완료일: 2009. 5. 20.

게재확정일: 2009. 6. 01.